



자살예방이
영적싸움이다

1만 3836명. 이것이 작년에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수이다.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죽었다. 자살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4위이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자살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뒤를 폐렴과 당뇨병 등이 있고, 그 뒤를 호흡기질환,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질병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사망 원인 4위라는 것은 이 사회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회에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폐렴이나 당뇨병, 간질환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약이 개발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심지어 TV에서도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또는 이러한 병에서 낫기 위해 어떠한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수시로 나온다. 그런데 이런 질병보다 자살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도 예방이나 치유에 대한 안내가 별로 없다. 이것은 정부나 이 사회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언론에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은 반짝 관심을 보인다. 또는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에 마음 아파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관심은 대부분 순간적이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는 동정일 뿐이다. 이러한 일들에 각성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작년에 청소년 의식조사를 한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적이 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약 30%가량이 그

렇다고 답했다. 단지 지난 1년 동안 말이다. 다시 그 아이들에게 물었다.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말이다. 그랬더니 평균 4번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거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죽음을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난 1년 동안 자살의 유혹에 빠졌다고 27%나 응답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터부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배워 온 것에 의해 사람들은 자살은 최악이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 바로 이러한 윤리의식과 바른 가치관이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때에 이미 이렇게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장벽을 한 번 넘은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터부시 되는 그 장벽을 넘어서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거나 학교나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면 마치 자살을 불러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데 자살은 사망 원인 4위이다. 결코 우리 주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필자가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LifeHope에 교육의뢰 공문이 들어 왔는데 첨부된 자료를 보니 경기도에서 학생이 자살했거나 시도했던 학교가 65개교나 되었다. 모두가 쉬쉬하지만 자살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백치와 같이 모른 척한다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며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이다. 현재 굿미션네트워크 이사이자 Life 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및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장, 월드뷰 편집위원 등으로 섬기고 있다. 독일의 쾰른대학교(Th.M.)와 마르부르크대학교(Th.D.)에서 수학하였으며, 저서로는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동체 가운데 자살을 맞이하는 것이다. 바로 어제든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전에 자살과 관련된 특강을 들었던 분이다. 교회 중고등부에서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털어놓는데 얼마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혼란 가운데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나냐는 것이다. 이미 장례는 시작되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작년에 예장통합 교단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지침서'를 통과시켰다. 한국 교단에서는 첫 시도였다. 필자도 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 내용은 자살에 대한 현황이나 이해, 그리고 자살의 의도를 가진 자들을 돕는 방법 등이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살자의 장례예식서와 설교문이다. 장신대에서 예배설교학을 가

르치는 김경진 교수의 수고로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진 경우',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안 알려진 경우' 그리고 '불신자 자살의 경우' 등 상황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족 예배예식서도 포함하고 있어 가족들이 추모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이 예식서는 무엇보다 자살자에 대한 장례를 총회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문서이다. 자살에 대한 교계의 입장이 진일보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올해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자살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10년 동안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에 있는 일본이나 헝가리의 자살률이 20명 정도라면 우리는 30명 수준으로 그 격차도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자살이 많은 나라였을까.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까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위 IMF 사태 이후 자살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것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30명에 이른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분명 계기가 있었던 것이다.

IMF 사태 이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제중심주의다. 돈이 우리 삶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생애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심지어 가정도 그 밑바닥에 돈이 자리하게 되었고, 대학도 어느덧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교회마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았으니 무엇을 더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치관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없고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만다. 기계같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40대와 50대 남성들의 자살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는 40대와 50대이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자살률이 높다. 그런데 이 연령대에 이르면 3배에 이른다. 왜 이 시기의 남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일까. 물론 이들이 죽는 이유를 어느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돈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삶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때려치우거나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명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 소규모 창업의 경우 1년 이내에 50%가 망하고, 3년이 지나면 80%가 망한다고 한다. 그러니 대부분 망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실패한 이들을 가정이 품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많은 남성들이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그 시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먼저 모인 인원을 보고 대부분의 담임목사들이 놀란다. 교인들이 자살이란 주제에 이렇게 모일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신들이 먼저 죽음의 고비를 넘어 보았다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생명보듬 교육을 받고 자신도 살 길을 찾고 싶고, 주변의 그러한 사람도 돕고 싶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이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생명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 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나누는 순간 그 주변에서 생명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는 이러한 간증을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생명문화이고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확산되어 간다면 대한민국의 자살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문화의 문제이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생명의 가치관, 즉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자살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나서서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자살예방운동이다.

모든 교회가 이 생명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한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특히 소그룹 리더들이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배우다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생명보듬 교육을 위해 교회를 방문해 보면 특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5.11.7일자)